신축년 새해, 동체대비로 화장세계 열자

서로 배려 · 인정하는 원융 · 상생 길 가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나날이 새 아침이건만 묵은해를 보내고 신축년(辛丑年)의 새 아침에, 떠오르는 광명(光明)이 부처님의 법음(法音)으로 화(化)하여 천둥으로 울리고 번개의 섬광(閃光)으로 온 세상에 무차(無遮)로 비추니, 산하대지(山河大地)가 그대로 화장세계(華藏世界)이고 태평성세(太平盛世)입니다.

거년(去年)에 전(全)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인간내면(人間內面)의 정신세계는 등한시하고 오직 물질과 편의(便宜)만을 추구한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와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주법계(宇宙法界)는 인드라망이요, 연기(緣起)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이므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의 자기 훼손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반목, 대립과 분열을 물리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융(圓融)과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갑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위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합시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행복(相生幸福)을 만들어 갑시다.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간절히 참구(參究)하고 또 참구하여 진정한 참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참나를 깨달으면 그곳에는 시비(是非)도 없고 분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화합과 동참의 시대 열자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새해에도 태양은 동녘에 떠올랐습니다. 대일법신의 혜광慧光이 사바의 아픔을 걷어내고 온 세상에 밝고 맑은 서기瑞氣가 샘솟아서 화합과 동참의 희망이 항상하길 서원합니다.

심인진리의 종문이 불법의 새 지평을 열고
생활 중에서 깨달아가는 방편을 베풀었으니
불교의 혁신불사를 여법如法하게 지속하여
즉신성불과 현세정화의 서원을 새롭게 합시다.

만물은 화합에서 생성하여 천차만별이라도
법계는 일여一如여서 본래 화합상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여 배려하고 동참하면
이웃이 어울려서 평등 사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인류는 미증유의 질병을 경험하며
생업이 험난하고 생명이 지쳐 위태합니다.
탐욕과 오만의 인과를 먼저 깨쳐 참회하고
생태를 보살펴서 병역의 고리를 막아냅시다.

종교인이 상승相乘의 교화를 살려내면
정치가는 상보相補의 정책으로 쟁론하고
경제계가 상생相生의 경쟁을 궁구하여
온화한 웃음이 넘치는 시대가 기다립니다.

금년 새해에는 병病 빈貧 쟁諍의 아픔을
넘어 따듯한 손길로 함께 보듬어 갑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1년 신축년 새해의 여명이 밝아 옵니다. 근면함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흰 소의 해를 맞아 국민과 불자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되길 기원드립니다.

2020년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명과 경제적 피해가 많았고 일상의 단절로 인해 사회의 온기도 낮아졌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맞이한 국민들은 자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동체대비의 마음을 실천해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많아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립은 격화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단단한 응집력으로 변화는 능동으로, 대립과 갈등은 포용과 상생으로 사회를 따스함으로 채워갑시다.

신축년 새해, 지혜롭고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지치고 힘든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희망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상생도약하는 한해 되길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종교는 인간 내면의 정화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자인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밑바탕이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우리 불교계는 물론 우리 종단도 정체성을 바로 찾고 확립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으며,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와 인류가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깨우쳐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신축년 '흰 소'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교훈 삼아 소처럼 더욱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과 꿈을 향해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 더욱 단단해지고 매화 향기도 추운 겨울에 더욱 짙어진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및 종도와 불자님들께서도 흰 소처럼 더욱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욱 더 행복하게 상생도약 하는 광명(光明)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법으로 밝은 삶 열어가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올해는 흰 소의 해입니다. 불교에서 흰 소는 정진과 깨달음의 상징이며, 강한 인내력과 정직, 근면의 상징입니다. 신축년에는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운이 융성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며 불자들은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성실하게 임하며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이한 새해에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정한 일심을 지켜가고 드넓은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고뇌를 성불의 토양으로 삼고, 치성한 병마를 건강의 디딤돌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본래 청정한 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수록 지극하게 정법에 귀의하여 밝은 삶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는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면 보이고 착한 마음으로 비추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신축년 한 해 동안 모든 사람이 대승의 보살도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밝은 사회를 회복합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새해입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자성을 밝혀 밝음을 되찾도록 정진합시다. 지난 한해의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는 역사의 한 순간으로 내려놓고 서원을 세워 참회하면서 정진하는 가운데 자성을 밝혀 밝은 사회를 회복합시다. 자성부처님을 찾아 생활 속에서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면서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성취해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고 주변을 정화함으로써 새 세상을 열어갑시다.

인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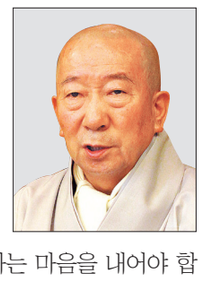
살아 있는 생명을 지키는 일은 숭고합니다. 더불어 살려는 의지이자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합시다.

진언행자와 불자들의 안녕을 바라며 소원한 바가 성취되고 국가의 정치, 경제발전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며 세계가 더불어 잘 사는 만다라공동체를 구현합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입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더 얻으려하기 보다는 비워서 즐거운 이치를 깨닫고 상대자의 저 허물이 내 허물의 그림자이듯 이해하고 보듬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이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다 같이 서원하고 정진합시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내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경자년 한 해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일 년 내내 지구촌의 사람들을 괴롭힌 한 해였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런 세월을 우리들은 염불과 기도 그리고 참선으로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겨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연법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가르침을 비유와 방편으로 우리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도 인연법에 의해 발생하고 창궐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영생불멸도 없으므로 '코로나19' 또한 사라져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평소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 하시되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비유품을 통하여 "여래는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일편단심 참구하라

지허 스님
태고종 종정



새해라 하니 새해가 어디서 왔는가? 지난해를 보냈다니 어디로 보냈는가? 새해는 신축(辛丑)년이라는 소(牛)를 상징하는 해이다. 소는 일생을 일만하다 죽고 죽으면 전신을 낱낱이 사람들에게 보시한다. 도(道) 닦는 사람은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일상(日常)속에 참구하고 법을 보시한다.

예로부터 도(道)를 성취한 대선지식(大善知識)들은 열반한 뒤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뒷산에 소가 되겠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달력이나 넘기면서 호구지책(糊口之策)에만 메여서 살아야 되겠는가. 몸은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살고 마음은 일편단심 도(道)에 들어 참구해야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은 껍질이고 마음의 복은 복의 내용이다.

코로나 병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복(福)의 내용을 채우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하니 내용이 충만하고 보기도 아름다운 큰 복(福)을 새해를 맞이하여 가득 받기 바란다.

법의 향기로 마음 채우자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보라도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중생의 번뇌도
지혜의 광명이 빛나는 자리에
흔적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불심이 깃들어있으니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이 빛난다면
깨달음의 도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을 보며
법의 향기로 마음을 가득 채워
모든 이웃을 공경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실 것입니다.

공덕을 온 누리에 두루 나누며
국태민안과 인류의 평화를 발원하며
화합과 기쁨의 새해를 열어 가십시오.

창종 50년 열어갈 것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금년은 원정 종조님께서 이 땅에 정통밀교를 세우신, 창종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총지종이 이제 성숙된 저력으로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구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단과 교도는 하나 된 마음으로 오직 실천으로 종조님께 보은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크나큰 시련은 우리 총지종으로서는 창종 50년사의 대 시련 고개이며, 앞으로 100년사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법계의 대 법문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신축년 새해는 가장 의미 깊고 또한 대망(大望)의 싹을 틔우는 전화위복의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합시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길은 화합과 상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공동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소'가 지닌 품성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과 강건함, 용맹정진으로써 난관을 극복해나갑시다.